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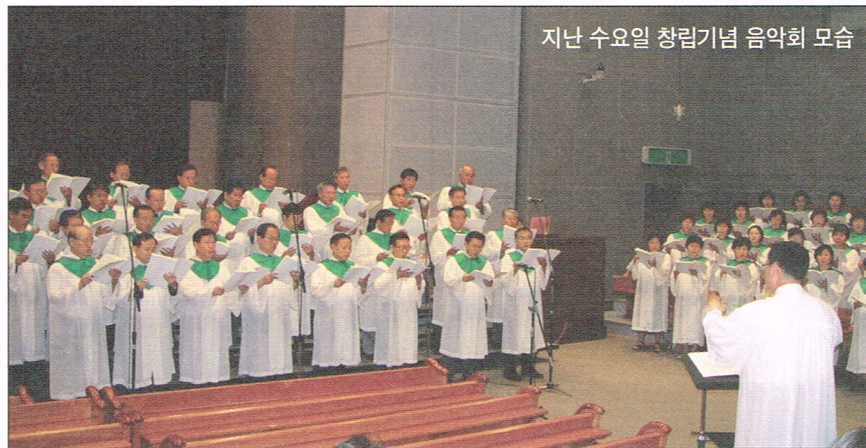
26일로 교회창립16주년 맞아

주님이 진정 주인되시는 교회 이루어

호산나 창립기념음악회, 이재철목사 창립주일설교, 3부예배시 장로, 집사,권사 임직식 가져

주님의교회가 2004년 6월26일로 창립16주년을 맞이하였다. 1988년에 용산구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여, 16년지나 지금 정신여중고 강당을 건축하여 기부한 후 예배를 드리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창립16주년을 맞아 지난 수요일(23일)저녁에 호산나찬양대에서 준비한 창립기념음악회를 가졌고, 창립기념주일인 오늘(27일), 3부예배시에 2004임직식을 가짐으로 주님의교회를 섬길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고 또한 이재철 목사가 설교하게 되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여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기리기 위해 가진 창립기념음악회는,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라는 윤좌원 장로의 기도로 시작해 오르간 은원주(오르가니스트) 집사의 독주와 박영주 집사의 지휘로 많은 곡을 열창하였고, 특히 소프라노 유소영(명지대교수)님이 "내주는 살아 계시고" 등을 열창하였으며, 트럼펫으로 안희찬(KBS교향악단 수석)이 명연주를 하였다.

우리교회 김정민 외 11명의 중창단이 "주



지난 수요일 창립기념 음악회 모습

의 사랑 비칠 때"와 "주 날 인도 하시네"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테너 최상호(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는 자"와 "여호와 나의 목자"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호산나 찬양대는 앵콜 송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는데 많은 청중의 멈추지 않는 기립박수로 초여름 밤에 무한한 주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수놓았다.

정신동문찬양의밤

김마리아선생 60주기 추모행사 강당 가득

진정한 '정신'으로 거듭나길

순국열사 김마리아 선생 60주기 추모를 위한 정신 동문 찬양의 밤 행사가 6월 21일 월요일 오후 7시 정신여중고 대강당인 김마리아회관에서 많은 교인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성대하게 열렸다. 김마리아 선생은 2.8독립선언과 3.1운동의 주동인물이자, 대표적인 여성 항일투쟁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회장으로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구국투쟁을 선도했던 정신여학교 출신의 민족 지도자이다. 김마리아 선생의 겨레 사랑 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신여중고 합창반, 정신여고 노래선교단, 예교 합창단, 정신 총 동문 메아리 합창단의 공연과 소프라노 박신희 씨의 독창으로 꾸며졌다. (6면에서 계속)

기사면 안내

- 1면: 교회행사 및 소식
- 2~4면: 장로, 집사, 권사 선거 공고
- 5면: 임직자 소개
- 6면: 주님의교회 16년 인터뷰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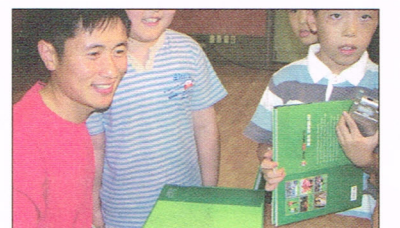
가자 '약속의 땅으로' 소년부 수련회

지난주일 소년부에서는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울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소년부에서는 찬양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데 학생들이 학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예배 후 2004년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는 기획회의를 하였다. 7월 22일~24일까지 경기도 중부수련원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된다. '가자, 약속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출애굽의 여정을 좇으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꿈을 꾸며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유소년축구클럽

축구선수 이영표와의 만남

지난 (6월20일(주일) 오후 2시30분에 유소년 축구 클럽 아이들을 위한 '축구선수 이영표와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이영표 선수는 이재철 목사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아이들을 위한 팬사인회 가지고, 유소년 축구 클럽 아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였다.



새가족환영의날

7월3일 토요일 오후6시에 지하1층 식당에서 2004년 상반기 새가족환영의날 행사를 갖습니다.

2교구 수련회

7월2-3일(금-토),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2교구수련회를 갖습니다. 2일 오전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참석하실 분들은 구역장에게 문의바랍니다.

주님의교회 연혁

창립16주년, 재적 청장년,학생 7500여명으로 성장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며 번식하는 교회되고자

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여성교육원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이재철 전도사의 설교와 이재원장로의 기도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해 11월에는 강남구 논현동 YMCA 2층 소망실로 예배장소를 이전하였다. 다음해 주일학교를 시작하고 2부예배를 신설하며 창립1주년을 맞이하였고 평양노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1990

년에 이재철전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았고, 그해 10월, 이재원 장로취임과 김도목,홍근용 장로장립이 있었다. 1991년에 예배중 헌금하지 않고 헌금봉투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6월에 창립3주년 기념예배와 함께 제1대 담임으로 이재철목사를 위임하였다. 1995년 창립7주년을 맞이하였고 그해 11월에 정신여중고 대강당을 설계하였고, 이

듬해인 1996년, 주일예배를 정신여중고 4층 강당에서 드리기 시작했다. 1997년 6월에는 강당건축 소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창립 9주년 기념예배시간에 4분의 장로 장립과 함께 초대장로인 이재원장로가 정년퇴임하였고, 1998년 제1대 담임 이재철 목사가 10년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하였다. 그해 11월에 신축대강당(김마리아홀)에서 입당예배를 드렸고,

이듬해 1999년 5월에 제2대 담임 임영수목사 위임식을 가졌고, 2000년에 들어서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기로 하였다. 창립14주년되는 2002년 8월 제2대 담임 임영수목사가 사임하였고, 그해 12월 중예배실 준공감사예배를 드렸고 이듬해 6월 제3대 담임목사로 문동학목사가 위임되었다. 창립기념15주년 기념예배시간에 이재철목사가 설교하였으며, 김도목,홍근용 장로의 정년퇴임식이 있었다. 주님의교회는 현재 재적 장년성도 5000여명, 재적 청년및 학생 2500여명으로 성장하였다.

2004 임직자를 소개합니다

장로 임직자



박 호 길



이 지 화



엄 주 청



김 성 배



이 영 자



김 경 빈



류 달 현



김 재 현



최 상 용



김 완 중

집사 임직자



서 치 영



김 용 일



송 국 환



최 중 만



신 정 응



이 단 열



최 중 명



박 동 수



김 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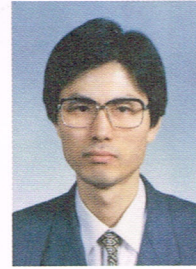
문 완 홍



강 진 식



지 유 철



이 중 복



임 창 남

권사 임직자



김 명 애



고 선 옥



유 은 숙



최 영 순



고 정 순



김 금 숙



이 승 숙



강 경 원



김 선 례



한 영 미



이 종 은

2004년 임직자 선거 공고

주님의교회에서 아래의 일정으로 임직자 피택을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및 입교인들은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일정 및 기준

- ◆ **공동의회** : 2004년 7월 4일(주일) 오전 8시 30분 개회
- ◆ **투표장소** : 정신여중고 본관 1층
- ◆ **피택인원** : 장로 5인, 집사 10인, 권사 10인
- ◆ **피택기준** : 장로 - 투표자의 2/3이상 득표
집사, 권사 -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
- ◆ **후보자선정**
 - ① 1차투표시 : 당회공천자
 - ② 2차투표시 : 1차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특기사항 참조)

◆ 투표과정

- ① 1차투표 : 7월 4일(주일) 오전 8:30~오후 1:30
- ② 1차투표결과발표 : 7월 7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 ③ 2차투표 : 7월 11일(주일) 오전 8:30 ~ 오후 1:30
- ④ 2차투표결과발표 : 7월 14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 특기사항

1차투표 결과 피택인원에 미달할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2차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2차투표시 각 후보자는 부족수의 2배수를 선정합니다. 2차투표로 선거를 마감합니다.

2004년 6월27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장로 공천후보

(이름은 가나다순, 기재내역은 생년, 등록년, 현재사역, 이전사역 순)



김 성 구

- 52년생 / 90년 등록
- 경리부장
- 재정부장



김 양 자

- 44년생 / 91년 등록
- 호스피스부장
- 주방부



김 우 림

- 47년생 / 95년 등록
- 3부찬양대
- 재정부장



박 중 규

- 48년생 / 89년 등록
- 계수부장
- 새가족사역팀



유 중 화

- 53년생 / 91년 등록
- 예배부장
- 2부찬양대장



이 성 우 A

- 46년생 / 88년 등록
- 안내부장
- 장학부장



최 상 인

- 57년생 / 90년 등록
- 청년2부장
- 합침합울편집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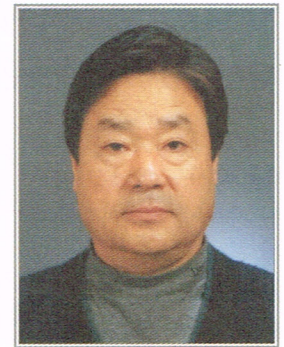
하 승 락

- 49년생 / 89년 등록
- 해외선교부
- 경조부장



한 득 현

- 46년생 / 92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소년부장



한 정 웅

- 44년생 / 90년 등록
- 119사역팀장
- 안내부장

권사 공천후보 (이름은 가나다순, 기재내역은 생년, 등록년, 현재사역, 이전사역 순)



고 유 자

- 53년생 / 89년 등록
- 선교자료부장
- 2부찬양대



김 경 미 A

- 56년생 / 92년 등록
- 자원봉사연결팀
- 3부 찬양대



김 설 희

- 54년생 / 93년 등록
- 2부찬양대
- 권찰



김 순 희 A

- 51년생 / 93년 등록
- 2부찬양대
- 경조부



김 현 주

- 56년생 / 92년 등록
- 구역장
- 중등부



박 귀 희

- 53년생 / 89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안내부



박 서 연 A

- 54년생 / 92년 등록
- 2부찬양대
- 호스피스부



박 영 남

- 53년생 / 91년 등록
- 경조부
- 주방부



백 설 희

- 57년생 / 90년 등록
- 호스피스부
- 경조부



손 혜 선

- 53년생 / 92년 등록
- 경조부
- 2부찬양대



송 정 현

- 38년생 / 96년 등록
- 1부찬양대
- 주방부



신 영 숙

- 57년생 / 94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교육지원부장



우 진 선

- 56년생 / 97년 등록
- 중등부
- 상담부



유 마 노

- 56년생 / 90년 등록
- 유아부장
- 주방부



이 경 자 B

- 52년생 / 96년 등록
- 봉사부
- 주방부



이 현 숙 C

- 55년생 / 97년 등록
- 주방부
- 주방부



이 희 순 A

- 53년생 / 92년 등록
- 소년부
- 드라마부



최 재 경 A

- 59년생 / 92년 등록
- 통합아동부장
- 경조부



최 정 윤 A

- 53년생 / 94년 등록
- 중보기도사역팀
- 유년부

집사 공천후보 (이름은 가나다순, 기재내역은 생년, 등록년, 현재사역, 이전사역 순)



김 구 중

- 52년생 / 91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김 기 성

- 46년생 / 95년 등록
- 봉사부
- 구역장



김 기 용

- 46년생 / 91년 등록
- 차량부
- 차량부



김 동 근A

- 52년생 / 94년 등록
- 강남병원선교팀
- 2부찬양대



김 홍 용

- 47년생 / 93년 등록
- 홍보출판부장
- 안내부



동 현 수

- 56년생 / 95년 등록
- 청년1부장
- 고등부장



박 대 길

- 51년생 / 96년 등록
- 중등부장
- 해외선교부



서 준 규

- 52년생 / 96년 등록
- 의료선교부장
- 2부찬양대



성 하 홍

- 51년생 / 95년 등록
- 구역장
- 봉사부



심 동 욱

- 52년생 / 92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유 중 열

- 58년생 / 98년 등록
- 구역장
- 방송부



윤 성 진

- 58년생 / 90년 등록
- 구역장
- 소년부장



이 동 희A

- 57년생 / 93년 등록
- 수요찬양팀장
- 도시선교부



이 상 윤A

- 52년생 / 94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이 용 수

- 59년생 / 90년 등록
- 유소년축구클럽
- 구역장



이 원 철

- 52년생 / 89년 등록
- 주방부
- 예배부



이 진 원

- 53년생 / 92년 등록
- 외국인선교부장
- 구역장



조 명 국

- 67년생 / 89년 등록
- 도서부
- 장애인부



조 영 룰

- 55년생 / 93년 등록
- 예배부
- 차량부



최 성 진

- 56년생 / 99년 등록
- 구역장
- 2부찬양대

권사 공천후보 (이름은 가나다순, 기재내역은 생년, 등록년, 현재사역, 이전사역 순)



고 유 자

- 53년생 / 89년 등록
- 선교자료부장
- 2부찬양대



김 경 미 A

- 56년생 / 92년 등록
- 자원봉사연결팀
- 3부 찬양대



김 설 희

- 54년생 / 93년 등록
- 2부찬양대
- 권찰



김 순 희 A

- 51년생 / 93년 등록
- 2부찬양대
- 경조부



김 현 주

- 56년생 / 92년 등록
- 구역장
- 중등부



박 귀 희

- 53년생 / 89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안내부



박 서 연 A

- 54년생 / 92년 등록
- 2부찬양대
- 호스피스부



박 영 남

- 53년생 / 91년 등록
- 경조부
- 주방부



백 설 희

- 57년생 / 90년 등록
- 호스피스부
- 경조부



손 혜 선

- 53년생 / 92년 등록
- 경조부
- 2부찬양대



송 정 현

- 38년생 / 96년 등록
- 1부찬양대
- 주방부



신 영 숙

- 56년생 / 94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교육지원부장



우 진 선

- 56년생 / 97년 등록
- 중등부
- 상담부



유 마 노

- 56년생 / 90년 등록
- 유아부장
- 주방부



이 경 자 B

- 52년생 / 96년 등록
- 봉사부
- 주방부



이 현 숙 C

- 55년생 / 97년 등록
- 주방부
- 주방부



이 희 순 A

- 53년생 / 92년 등록
- 소년부
- 드라마부



최 재 경 A

- 59년생 / 92년 등록
- 통합아동부장
- 경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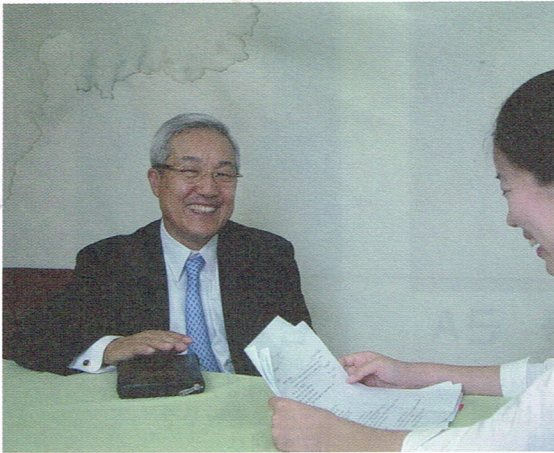


최 정 윤 A

- 53년생 / 94년 등록
- 중보기도사역팀
- 유년부

양동훈 장로에게 듣는다.

주님의교회 16년을 돌아보며



창립 당시의 상황

1988년 이재철 목사님은 당시 영락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셨었다. 김도목 장로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 뵈 후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성경공부를 한 것이 시초가 되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1988년 6월 26일 오후 4시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목사님께서 영락교회의 교육전도사이셨기 때문이었다.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에서 지금은 장로님들이신 이재원, 김도목, 홍근용, 황기연 과 본인, 30명의 교인 그리고 하객까지 총 50~60명이 모여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는 첫 예배 전 날 기도회를 가지며, 교회 헌금의 50%를 대외 선교 및 구제에 쓰기로 서원기도를 드렸었다.

'주님의교회' 라는 이름

마태16장 말씀을 기초해서 교회 이름을 위해 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던 중에 주님이 주신 교회가 되자는 의미에서 '주님의교회'로 하자고 하셨다. 이것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있었으나 기도로써 하나님께 응답 받고 교회이름을 정하였으므로 지켜 나가기로 했다.

YMCA로 이전

30명으로 시작했던 교인의 수가 70~80명으로 늘어나자 예배장소가 협소했으므로 장소를 물색하다가 우연히 YMCA에 자리가 났다. 임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어려움이 따랐으나 결국은 11월1일 YMCA의 2층 소망실(결혼 예식실)에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0년에 YMCA의 교육관으로 쓰이던 별채

건물에 전세로 입주할 수 있었다. 그동안 사글세로 지내다 처음으로 전세로 들어간 것이다.

무기명 헌금 시작에 관한 사연

그 당시 전도사의 숙소가 없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던 중 어떤 분이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였다. 헌금 봉투에는 단지 '사택용'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 때부터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헌금하자고 제안하셨다. 그것이 시발이었고, 그 이후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재정적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YMCA 교회 시절에 대한 회상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교회 가는 것이 설레었고, 평일에도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곤 했었다. 300명 남짓한 교인들이 서로 진실 되게 아껴주었던 것 같다. 그 시절의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 목사님과 구역심방을 다닐 때 어느 집사님 댁에 갔었는데, 그분의 남편은 일 때문에 자정이 돼야 집에 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0시까지 심방을 하고, 남편 분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새벽1시에 끝냈던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의교회가 시작되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전에 썬데이 크리스천(sunday christians)이었던 자신이 1주일에 4일은 기꺼이 교회로 향했고, 즐겁게 일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인생 중 천국의 상태가 아닐까란 생각을 했었다.

정신여중·고로 이전

헌금의 50%를 대외 선교 및 구제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초기의 방침은 예산을 미리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쓸 곳을 정해주시리라 믿고, 요청하는 곳은 다 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헌금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자, 당회에서는 작은 곳에 나누어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여중·고의 합창단이 YMCA의 주님의교회로 찬양 사역을 왔었다. 그 때 합창단 인솔자이신 박영주 집사님(현재 1부 예배 지휘자)을 뵈게 되었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신여중·고에 전체 학생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없어서 졸업생들과 학교 측이 10여년 동안 기도를 드려 왔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다른 교회에서 이

를 위해 제안을 했으나 여러 상황이 맞지 않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 때 우리가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 목사님과 김 장로님이 정신여중·고 교장 선생님과 재단 이사장님을 만나서 함께 학교에 예배 공간을 기증하자는 합의를 했다. 물론 혼란과 갈등이 있었다. 학교에 건물을 지어준 후 이곳을 쓰는 것이 무소유의 개념에 합당한 것인가...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 입당 후에도 교회 초기의 이념에 충실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학교 중심으로 하여 우리는 밀려 쓰는 전세자의 마음가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금까지 7년째 큰 불협화음 없이 잘해나가고 있다.

대강당 건립 예산

당시 교회 자산은 전세금 5억이 전부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의 신앙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동안 목사님들께서는 건축헌금이나 특별헌금을 언급하신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사회의 척도로 본다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기적이다. 도저히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도전할 수 없는 공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세분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

이재철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신선한 목회철학을 세우고, 철저히 교회의 기초를 다지셨다. 그리고 임영수 목사님은 영성훈련을 통해 영적성장을 하게 하였고, 문동학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번식하는 교회와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세밀하게 제시하고 실천하고 계시다.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에 이재철 목사님 초청

이 목사님께서 스위스에 계셨을 동안에는 모실 기회가 없었는데, 작년 창립 기념 예배 준비 때 이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당회에서도 문동학 목사님의 제안으로 매년 창립 기념 예배 때마다 이재철목사님을 초청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창립하신 목사님을 초청함은 주님의교회 전통을 지키며, 기억한다는 의미와 교회를 세웠을 때의 정신을 상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6년간 어려웠던 점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살피주신 것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 창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때 노력하신 목사님에 비하면 우리는 무임승차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을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대로 따라 살 것이다.

(1면에 이어서)

정신동문찬양의밤

김마리아선생 60주기 추모행사 강당 가득

진정한 '정신'으로 거듭나길



강당을 가득 메운 교인들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화음에 아낌없는 호응을 보여주며 찬양 안에 하나 되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성여 정신여중고 동문회

마음속에 잃어 버렸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고 김마리아 선생의 나라사랑,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 어지러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신'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 시대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주변의 왕따 아이들

6월 20일 주일 통합아동부 예배는 13일부터 설교를 담당한 유영안 전도사의 기도로 문을 열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웠고 이들이 십자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것이다. 말씀 시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위의 강도만난 자들을 돌보아 주자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충격적인 것은, 각자의 반에

질문에 너무도 서슴없이 손을 드는 아이들의 모습이였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 이들을 우리가 돌보아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썩트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썩트네'는 0세-7세(학령전)의 아이들이 모여서 작은 입술 모아 찬양하고, 두손 모아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매주 9:30-10:30에 모인다. 1층 교회사무실 바로 옆방이다. 작년에는 유아1부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호칭을 바꾸었다.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주님 안에서 새싹처럼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찬양의 제목이기도

이다.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적응하고 교사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란 호칭 대신 '이모, 삼촌'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썩트네'의 부장 최재경 집사와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 일례로 얼마 전에는 헌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던 중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고 가는 것 보다 자신이 소중한 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부모님이 주신 돈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였다.(이 날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인형, 사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 아직은 시작인지만 부족함도 많지만 8월에는 여름성경학교도 계획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cafe.naver.com/ssack.cafe>로 방문하여 아이들의 예배와 사진, 동영상도 보실 수 있다.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를 꿈꾼다 - 비전팀 출범 그후 6개월

영향력있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십 형성을 위한 4가지 중점사역

비전팀을 소개합니다.

비전팀은 우리 주님의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를 사역의 목표 중의 하나로 채택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청소년사역의 목표, 내용 및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청소년사역에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4년 1월 24일 출범하였다.

그 동안 10여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거나 방문하여 청소년 사역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청소년사역의 방향을 모색해 왔다.

권오승 장로를 팀장으로, 이희숙, 손천숙, 이종은 권사, 박대길, 최현섭, 동현수, 우진선, 김낙균, 박용운, 신양금, 윤명희 집사, 이상아 교사, 정영환, 윤은성 목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비전팀이 걸어온 길

일자/2004		특 기 사 항
1. 24	1차모임	비전팀 취지소개
2. 7	2차모임	담당목사의 비전 설명
2. 22	3차모임	권오승 장로 발제
3. 7	4차모임	윤은성 목사 발제
3. 20	5차모임	
4. 10	6차모임	장동현, 한만길 박사 (홍사단) 초청
4. 14	공개강좌 I	홍민기 목사 초청, 1차 자료집 발간
4. 18	7차모임	
5. 22	공개강좌 II	김형모씨
5. 25-26	9차모임	비전팀 MT, 간디청소년학교 탐방
6. 20	10차모임	
6. 26	11차모임	담당목사와의 간담회

비전팀은 그동안 10여차례의 모임을 거치면서, 청소년사역의 목표를 “영향력 있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십의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역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정리하였다.

1. 청소년 사역자와 사역기관의 네트워크와 지원
2. 청소년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3. 교회학교 청소년사역의 모델 제시
4. 문화사역을 중심으로 한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

만날수록 구체화되는 비전

지난 6월 26일(토) 저녁 6시 30분에 동현수 집사택에서 비전팀이 함께 모였다. 상반기에 계속된 모임을 마무리하고, 담당목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이날 모임에는 문동학 목사를 비롯하여 정영환 목사, 팀장인 권오승 장로, 이희숙, 손천숙, 이종은 권사, 박대길, 최현섭, 동현수, 우진선, 박용운, 신양금, 윤명희 집사가 부부동반으로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며, 비전팀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점검하였다.

꿈을 꾸기 시작하다

비전팀의 첫모임은 2004년 1월 24일 식당 “동원”에서였다.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라는 주님의교회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팀장 권오승 장로의 주관으로 모였다. 막연하긴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청소년사역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로 첫모임은 마무리되었다.

모델을 제시하라

2차 모임에서 문동학 목사님을 모셨다. 문목사님은 우리 교회 청소년사역이 1.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어야 하고, 2.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3. 교회 외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역이 되어야 하고, 4. 청소년사역자를 네트워크하는 산파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5. 전문화되고 집중화된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후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느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함께 공감하는 우리교회 청소년사역의 목표가 “차세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 양성”이라고 설정하였다.

공동체 사역이어야 한다

3차 모임에서는 팀장 권오승 장로의 발제를 듣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차세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통한 전인적인 사역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되었다. (6면에서 계속)

청소년사역자에게서 배운다.

1. 홍민기 목사 <청소년사역의 모델이 되어달라>

1차 공개강좌에서 홍민기 목사(브릿지임팩트사역원 대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주님의교회가 청소년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지금도 밤 12시에 학원이 끝나면 학원문앞에서 아이들을 만나 함께 떡볶이를 먹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홍목사는,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편들어주는” 사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2. 김형모씨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투자하라>

비전팀과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차 공개강좌에서 김형모씨(심대들의쪽지 발행인)는 그동안 받은 청소년들의 편지들을 인용하면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하였다. 청소년사역은 기본적으로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벤트보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소년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부모들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3. 양희창 교장 <가치관 교육이 우선이다>

비전팀은 대안학교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간디청소년학교(충북 제천 소재)를 방문하여 양희창 교장을 만났다. 양교장은 청소년의 문화코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치관 교육이 결여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였다. 사랑과 헌신이 교과과정 속에 녹아있는 교육, 아이들의 탁월함을 찾아주는 교육, 행복한 각자의 모습을 찾도록 돕는 교육에 대해 역설했다. 중국의 아시아연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시아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심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님의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으로 문화대안학교를 운영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비전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전 교인들이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 교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전팀이 담당하는 일은 오로지 그러한 일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청소년사역의 집중화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꼼꼼히 봐 주십시오.

함글함글을 통해, 그리고 공개강좌와 다양한 기회를 통해 비전팀의 사역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꼼꼼히 지켜봐 주십시오.

2. 직접 참여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비전팀 모임에 직접 참여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전팀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의 더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사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비전팀에 말씀해 주십시오.

3. 기도해 주십시오.

은 교인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에 비전팀을 위한 기도팀이 있습니다. 구역에서나 개인적으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